

1. 다음 <표>는 ‘갑’국의 2017~2020년 국제우편물 우편물종별 물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국제우편물 우편물종별 물량 현황
(단위: 천통)

구분\연도	2020	2019	2018	2017
일반통상	1,310	5,064	5,466	6,459
서장	290	899	1,131	1,420
엽서	11	177	191	203
인쇄물	406	1,096	1,243	1,438
소형포장물	603	2,892	2,901	3,398
특수통상	1,942	7,715	7,676	4,791
국제특급	2,267	6,268	6,042	6,832
국제소포	539	553	576	589
계	6,058	19,600	19,760	18,671

※ ‘갑’국의 국제우편물은 일반통상, 특수통상, 국제특급, 국제소포로 구성됨

<보 기>

- ㄱ. 2018~2020년 동안 전체 국제우편물에서 국제특급 우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다.
- ㄴ. 2017~2020년 동안 서장, 엽서, 인쇄물, 소형포장물을 물량이 많은 우편물종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순서는 매년 동일하다.
- ㄷ. 국제소포 물량은 매년 1,000통 이하였다.
- ㄹ. 2020년 국제우편물 전체 물량은 전년대비 65% 이상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 다음 <표>는 A~E 위원회의 의안종류별 처리 및 법률안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위원회별 · 의안종류별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A	B	C	D	E
법률안	의원발의	212	379	455	604	521
	정부제출	18	38	10	47	15
동의안		2	5	1	2	1
결의안		2	1	1	2	1

<표 2>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현황
(단위: 건)

위원회	접수	처 리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 반영	수정안 반영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A	1,259	51	31	132	-	1	2	9	-	4
B	1,303	42	13	352	-	-	-	10	-	-
C	1,637	89	42	306	-	5	-	18	4	1
D	1,729	90	49	499	-	-	-	13	-	-
E	1,280	97	84	256	-	-	86	13	-	-

※ 법률안 처리율(%) = $\frac{\text{처리 법률안}}{\text{접수 법률안}} \times 100$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서로 동의안과 결의안 처리건수가 각각 같다.
-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보다 법률안 처리율이 높다.
- 처리 법률안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낮다.
- 수정가결된 법률안 대비 원안가결된 법률안 비율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두번째로 높다.

	A	B	C	D	E
①	법제사법 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②	보건복지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③	행정안전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④	법제사법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⑤	행정안전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국토교통 위원회

3. 다음 <표>는 2021년 지역별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1년 지역별 통합재정수지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지출	회수
전국	2,282,168	2,492,116	30,627	13,712
서울	349,116	389,166	12,973	5,108
부산	124,592	131,134	548	186
대구	86,046	95,979	524	422
인천	112,981	121,432	1,098	206
광주	55,197	58,035	376	340
대전	51,541	56,267	6	2
울산	43,216	45,596	44	10
세종	11,714	15,103	64	19
경기	444,060	509,068	5,314	3,031
강원	115,290	121,683	2,424	589
충북	90,073	95,698	633	586
충남	125,044	133,017	623	285
전북	123,685	130,171	412	264
전남	149,955	158,368	2,281	1,090
경북	178,626	190,167	2,034	622
경남	171,055	185,097	1,218	929
제주	49,977	56,135	55	23

※ 순융자 = 지출 - 회수

※ 통합재정규모 = 세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비율(%) = $\frac{\text{통합재정수지}}{\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보 기>

- ㄱ.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통합재정규모는 전국의 통합재정규모의 40% 미만이다.
- ㄴ. 통합재정수지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이다.
- ㄷ. 경기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경남의 통합재정수지비율보다 높다.
- ㄹ.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의 통합재정수지비율보다 낮은 지역은 5개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4.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지주회사	103	11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154
대기업집단 소속	28	30	30	29	19	39	34	37	41	44
금융지주회사	12	13	15	10	10	10	9	10	10	10
대기업집단 소속	2	2	1	1	1	2	3	2	2	2

※ 표 안의 값은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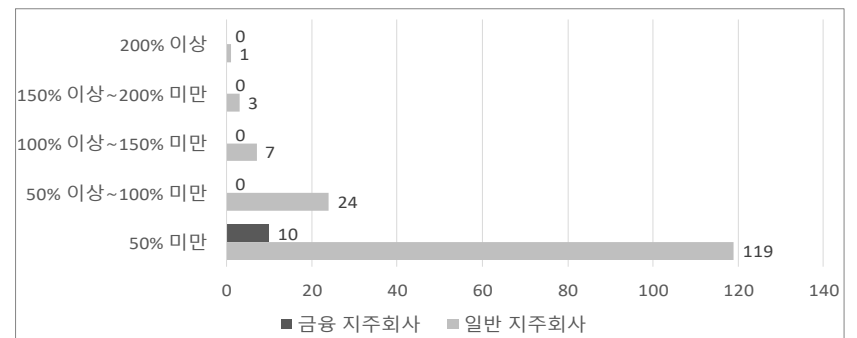
<표 2> 2020년도 자산총액별 지주회사 수

(단위: 천억원, 개)

구분 \ 자산총액	5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일반지주회사	76	36	27	7	2	2	4
대기업집단 소속	2	9	18	7	2	2	4
금융지주회사	0	0	2	1	1	1	5
대기업집단 소속	0	0	0	0	0	1	1

<그림> 2020년도 부채비율별 지주회사 수

(단위: 개)



<보 고 서>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주회사의 수는 164개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지주회사들의 자산총액 감소 및 제외 신청 등이었다. ㉠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수는 2017~2020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2020년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1,598억원으로 전년대비 1,631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지주회사의 수는 2019년에는 전체 167개 중 82개였으나, 2020년에는 76개로 전년보다 그 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 2020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의 수는 전체 지주회사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5개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이다. ㉢ 한편, 2020년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지주회사의 수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일반지주회사 35.6%, 금융지주회사 30.1%)로 법률상 기준(200% 이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 2020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지주회사의 수는 전체 지주회사의 수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100% 이상 지주회사의 수는 11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5. 다음 <보고서>는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에 대한 자료이다.
<보기>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모두 고르면?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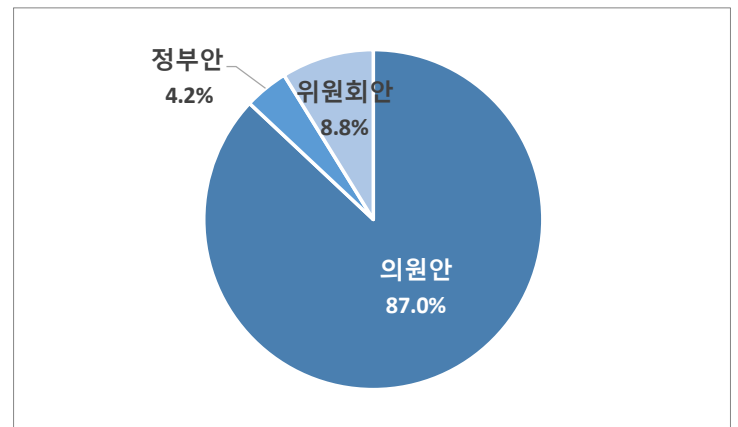
제20대 국회 4년 임기동안 총 24,141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안자별 제출 현황을 보면, 의원안이 21,594건, 정부안이 1,094건, 위원회안이 1,453건이었다. 정부안과 의원안의 처리 결과를 보면, 제15대 국회 이후 정부안의 대안반영폐기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39.6%를 기록했다. 의원안의 경우 제16대 국회까지 정부안보다 대안반영폐기율이 높았으나 제17대 국회부터는 정부안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초선, 2선, 3선 이상의 범주로 구분하여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안 수 대비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처리된 의원안 수의 비율은 초선의원의 경우 6.7%, 2선 의원의 경우 7.3%,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5.9%이다. 선수별 전체 의원안 수 대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수의 비율을 보면 2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66.3%로 가장 낮다.

제안자별 법안가결률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안의 가결률은 제14대 국회에서 92.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제20대 국회에서 27.9%를 기록했다. 의원안은 제18대 국회에서 5.7%의 가결률을 기록한 이후 제19대 국회에서는 7.3%, 제20대 국회에서는 6.7%의 가결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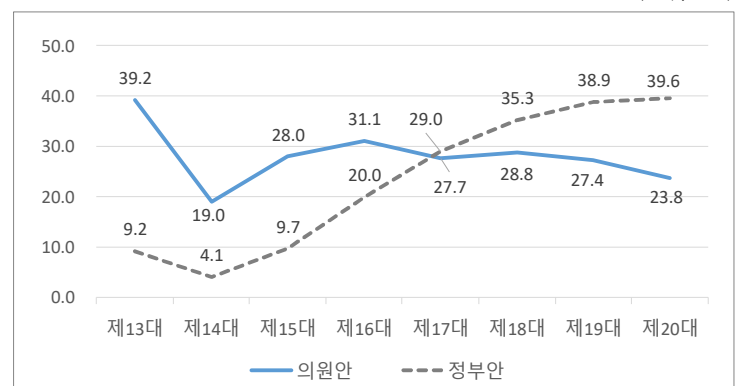
<보 기>

7. 제20대 국회 제출 법안의 제안자별 구성비



2. 정부안과 의원안의 대안반영폐기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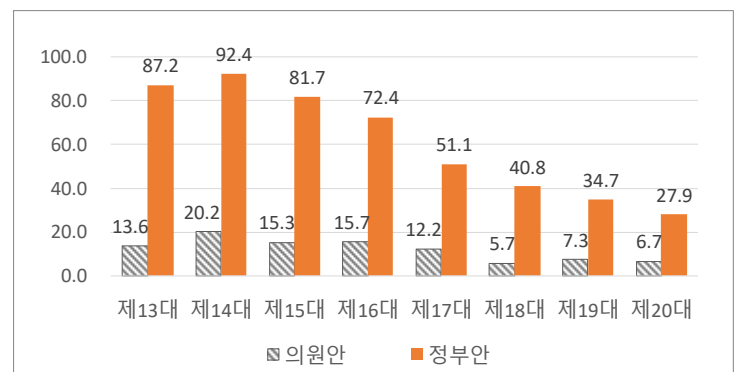
㉔. 선수별 의원안의 처리결과

(단위: 건)

구분	전체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대안 반영 폐기	수정안 반영 폐기	철회	임기 만료 폐기
초선	10,367	291	398	2	42	2,418	21	104	7,091
2선	6,194	161	288	-	42	1,344	4	53	4,302
3선 이상	5,033	117	182	-	34	1,183	16	55	3,446
의원안 합계	21,594	569	868	2	118	4,945	41	212	14,839

ㄷ. 의원안과 정부안의 법안가결률 차이

(단위: %)



- ① $\neg$
② $\neg, \perp$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perp, \sqsubset, \sqsupset$

6. 다음 <표>는 2022년 1월 1일~1월 5일 철강 분야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년 1월 1일~1월 5일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철강 분야)
(단위: 달러/톤)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냉연	889	1,043	805	901	2,354
열연	677	916	603	719	2,041
철근	646	782	685	670	1,093
철광석	73	74	101	126	137

※ 하루 동안 각 원자재의 톤당 가격은 고정됨
 ※ 상기 <표>의 가격으로 원자재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기타 제반비용은 없음

<보 기>

- ㄱ. 주어진 5일 동안의 톤당 가격의 평균은 냉연 > 열연 > 철근 > 철광석 순이다.
- ㄴ. 철근 100톤을 1월 4일에 사서 1월 5일에 모두 판다면 열연 1,000톤을 1월 1일에 사서 1월 4일에 모두 파는 경우보다 차익이 크다.
- ㄷ. 1월 3일 철광석 톤당 가격은 주어진 5일 동안의 철광석 톤당 가격의 평균보다 높다.
- ㄹ. 1월 1일 톤당 가격 대비 1월 5일 톤당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원자재는 열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7. 다음 <표>는 ‘갑’국 층간소음 현장진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층간소음 현장진단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처리대상		처리결과						
	전년 이월	접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 소음측정			전체 처리 결과 (C = A+B)
			전문가 상담	자체 해결	소계 (A)	방문 상담	소음 측정	소계 (B)	
2012년	-	1,829	97	254	351	377	-	377	()
2013년	1,101	3,271	683	713	1,396	1,224	-	1,224	2,620
2014년	1,752	4,465	1,379	1,410	2,789	1,747	81	1,828	()
2015년	1,600	4,712	1,452	1,025	2,477	2,364	159	2,523	5,000
2016년	1,312	6,306	2,575	805	3,380	2,158	203	2,361	()
2017년	1,877	9,226	4,674	1,496	6,170	1,997	409	2,406	8,576
2018년	2,527	10,142	()	1,488	8,058	1,817	419	2,236	()
2019년	2,375	7,971	()	1,591	7,447	1,745	462	2,207	9,654
2020년	692	12,139	()	1,725	10,711	714	183	897	()
총계	-	60,061	32,272	10,507	42,779	14,143	1,916	16,059	()

※ 처리대상 건수 = 전년이월 건수 + 접수 건수
 ※ 처리율(%) = $\frac{\text{전체처리결과 건수}}{\text{처리대상 건수}} \times 100$

<보 기>

- ㄱ. 조사기간 동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9년이다.
- ㄴ. 전체처리결과 건수는 조사기간 동안 매년 증가했다.
- ㄷ. 추가 전화상담 건수에서 전문가 상담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이 2018년에 비해 높다.
- ㄹ. 전문가 상담 건수는 조사기간 동안 매년 증가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ㄴ, ㄹ

8. 다음 <표>는 A~C국의 교육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GDP 대비 교육비 비율, 정부지원 교육비

구분 \ 국가			A	B	C
학급당 학생 수 (명)	초등학교		24.9	19.6	21.1
	중학교		23.3	22.7	23.5
	고등학교		22.0	23.9	23.4
교사 1인당 학생 수 (명)	초등학교		20.1	14.6	17.4
	중학교		20.4	16.9	19.0
	고등학교		19.4	18.3	18.0
GDP 대비 교육비 비율 (%)	정부 지원 교육비	초등학교	1.7	1.1	1.4
		중학교	0.6	0.9	0.8
		고등학교	0.5	1.1	1.2
	민간 재원 교육비	초등학교	1.3	1.3	2.3
		중학교	1.1	1.7	2.3
		고등학교	1.2	2.0	2.6
정부지원 교육비 (백만달러)			219,128	63,598	100,358

※ 전체 교육비는 정부지원 교육비와 민간재원 교육비로 구성됨

<보 기>

- ㄱ. B국은 모든 학교급에서 각각 학급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다.
- ㄴ. 초등학교급의 교사 1인당 학급 수는 B국이 A국보다 많다.
- ㄷ. GDP 대비 정부지원 교육비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전체 교육비 대비 민간재원 교육비 비중도 가장 낮다.
- ㄹ. A국의 GDP는 C국 GDP의 3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ㄱ, ㄹ
- ⑤ ㄱ, ㄷ, ㄹ

9. 다음 <표>는 ‘갑’국의 2021년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갑’국 소년보호사건 접수사건 현황

(단위: 건)

구분 \ 법원	접수	처리			미처리		
		계	보호처분	기타	계	항고	미제
A가정법원	534	335	304	31	199	105	94
B지방법원	314	210	160	50	104	52	52
C가정법원	406	279	238	41	127	89	38
D가정법원	655	401	296	105	254	170	84
E지방법원	97	68	38	30	29	19	10
전 체	2,006	1,293	1,036	257	713	435	278

※ 접수사건 = 처리사건 + 미처리사건
= 보호처분사건 + 기타사건 + 항고사건 + 미제사건

※ 처리사건 = 보호처분사건 + 기타사건

※ 표에 제시된 법원 외에 2021년 ‘갑’국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법원은 없음

<표 2> ‘갑’국 보호처분 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 법원	1호	2호	3호	1·2호	1·3호	2·3호	1·2·3호
A가정법원	98	151	154	()	61	3	1
B지방법원	35	90	88	19	18	27	()
C가정법원	70	150	114	52	20	35	()
D가정법원	77	177	124	46	16	()	5
E지방법원	15	16	18	0	0	11	0

※ 법원이 한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 해당하는 표 항목에 모두 기록함
(예: 한 사건에서 1호 보호처분과 2호 보호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 1호, 2호, 1·2호 항목에 모두 기록)

- ① 접수사건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갑’국 법원은 E지방법원이다.
- ② ‘갑’국 모든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사건에서 2호와 3호 보호처분만을 동시에 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이다.
- ③ 2021년 ‘갑’국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80% 이상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었다.
- ④ 보호처분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1호 보호처분만을 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갑’국 법원은 A가정법원이다.
- ⑤ 접수사건 중 처리사건의 비중보다 미처리사건 중 항고사건의 비중이 높은 ‘갑’국 가정법원은 1곳이다.

10. 다음 <표>는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갑’이 기업의 부도 여부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에 대한 결과표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갑’의 예측 결과표
(단위: 개)

		실제 값		총 계
		부도 O	부도 X	
예측 값	부도 O	30	40	70
	부도 X	20	810	830
총 계		50	850	900

<정 보>

○ 예측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예측 값이 실제 값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지 보여주는 혼동행렬은 다음과 같다.

		실제 값	
		긍정(O)	부정(X)
예측 값	긍정(O)	참긍정(TP)	거짓긍정(FP)
	부정(X)	거짓부정(FN)	참부정(TN)

○ 정확도(%) = $\frac{TP + TN}{TP + TN + FP + FN} \times 100$

○ 정밀도(%) = $\frac{TP}{TP + FP} \times 100$

○ 재현율(%) = $\frac{TP}{TP + FN} \times 100$

○ 특이도(%) = $\frac{TN}{TN + FP} \times 100$

<보 기>

- ㄱ.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0% 이하이다.
 ㄴ. 부도가 날 것으로 예측된 기업 중 실제로 부도가 난 기업의 비율은 42% 이상이다.
 ㄷ.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재현율은 정밀도보다 높다.
 ㄹ. 기업의 부도 여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특이도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은 2021년 2학기 ‘갑’대학교 경제학과 어느 강의의 성적 산출 방식이다. 학생 A~E 중 최종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정 보>

- 최종 성적 산출 방식
 최종 성적 = (중간고사 점수 × 0.3) + (기말고사 점수 × 0.4)
 + (과제 점수 × 0.15) + (출석 점수 × 0.15) + 태도 점수

○ 각 항목별 만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과제	2차 과제	3차 과제	온라인 출석	오프라인 출석
100점	100점	100점	100점	60점	20점	20점

- 과제 점수는 1차, 2차, 3차 과제 점수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한다.
 ○ 출석 점수 = (온라인 출석 점수 × 0.3) + (오프라인 출석 점수 × 0.7)
 ○ 태도 점수는 출석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한다. 단, 출석 점수가 16점 미만인 경우 태도 점수는 0점으로 한다.

<표> 학생 A~E의 항목별 점수

(단위: 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과제	2차 과제	3차 과제	온라인 출석	오프라인 출석
A	80	80	96	98	55	20	17
B	76	84	89	95	52	19	19
C	70	78	90	92	60	20	20
D	70	90	100	100	60	14	16
E	90	65	92	88	57	13	20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2. 다음 <표>는 A~E 자치구의 2019~2020년 자전거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자치구(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2020년 A~E 자치구의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개, km)

구 분		A	B	C	D	E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간	15	17	6	9	28
	총 길이	6.7	7.6	6.2	9.5	37.2
자전거 전용차로	구간	30	4	2	13	2
	총 길이	20.3	1.8	2.1	6.9	2.6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	8	-	5	-	-
	총 길이	5.1	-	2.7	-	-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	29	26	1	16	-
	총 길이	31.7	21.7	0.3	10.2	-

<표 2> 2019년 A~E 자치구의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개, km)

구 분		A	B	C	D	E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간	12	7	5	6	17
	총 길이	5	5.9	4.7	5.9	24.6
자전거 전용차로	구간	14	2	1	10	1
	총 길이	12.6	1.9	2.4	10.9	2.3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	6	1	1	-	-
	총 길이	3.2	0.4	0.3	-	-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	15	17	1	8	-
	총 길이	16.2	11.2	0.3	6.9	-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로 분류됨

<정 보>

- 2019년 자전거전용차로 구간별 평균 길이가 큰 상위 두 개 자치구는 ‘은평구’와 ‘성북구’이다.
- 2020년 자전거우선도로의 구간별 평균 길이는 ‘영등포구’가 ‘서대문구’보다 길다.
- 2019년 대비 2020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총 길이의 증가율은 ‘은평구’가 ‘서대문구’보다 높다.
- 2020년 ‘영등포구’, ‘성북구’에는 모든 유형의 자전거도로가 하나 이상씩 있다.

- | | <u>A</u> | <u>B</u> | <u>C</u> | <u>D</u> | <u>E</u> |
|---|----------|----------|----------|----------|----------|
| ① | 영등포구 | 종로구 | 성북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 ② | 영등포구 | 서대문구 | 성북구 | 종로구 | 은평구 |
| ③ | 영등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종로구 | 성북구 |
| ④ | 성북구 | 종로구 | 영등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 ⑤ | 성북구 | 서대문구 | 영등포구 | 은평구 | 종로구 |

13. 다음 <표>는 국가 ‘가’~‘차’의 2015~2019년 수출·입 현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정보>를 근거로 동일한 국가끼리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표 1> 국가 ‘가’~‘차’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A]	1,503,400	1,451,500	1,547,200	1,665,700	1,643,100	7,810,900
[B]	1,326,206	1,334,343	1,448,178	1,560,537	1,489,430	7,158,694
[C]	624,787	644,899	698,131	738,195	705,671	3,411,683
[D]	464,700	468,172	527,910	587,895	576,786	2,625,463
[E]	496,183	488,931	525,890	570,735	559,150	2,640,889
[F]	526,757	495,426	573,694	604,860	542,233	2,742,970
[G]	456,084	462,388	511,753	550,269	539,708	2,520,202
[H]	381,170	373,175	408,301	449,221	459,597	2,071,464
[I]	410,200	394,055	424,216	453,475	450,805	2,132,751
[J]	396,773	398,391	429,640	468,638	446,901	2,140,343

<표 2> 국가 ‘가’~‘차’의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K]	2,248,800	2,186,800	2,339,600	2,537,700	2,497,500	11,810,400
[L]	1,051,132	1,055,316	1,162,898	1,284,352	1,233,994	5,787,692
[M]	647,982	607,601	671,921	748,526	721,078	3,397,108
[N]	563,561	559,214	612,136	667,876	647,361	3,050,148
[O]	609,711	576,539	603,489	644,517	622,640	3,056,896
[P]	412,694	408,049	461,906	521,037	514,851	2,318,537
[Q]	436,499	406,193	478,478	535,202	503,343	2,359,715
[R]	410,091	408,241	457,388	503,929	475,979	2,255,628
[S]	429,490	413,106	443,282	468,729	462,392	2,216,999
[T]	375,541	379,428	409,210	454,968	427,845	2,046,992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흑자: 무역수지 > 0,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 < 0

<정 보>

- ‘가’, ‘나’, ‘다’는 5개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이 모두 상위 3위 이내이다.
- ‘라’의 2019년 수출액은 6번째로 크고, 같은 해 무역수지는 38,890백만달러 흑자이다.
- ‘마’와 ‘바’는 모두 ‘라’보다 5개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이 적다.
- ‘사’의 수출액은 2019년에만 ‘라’보다 많고 5개년 수입액의 합은 3,050,148백만달러이다.
- ‘아’의 5개년 연평균 수입액은 ‘사’보다 많다.
- ‘자’의 2018년 수출액은 ‘라’보다 적고 ‘사’보다는 많으며, 5개년 무역수지의 합은 306,926백만달러 흑자이다.
- ‘차’는 5개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 모두 ‘라’보다 적고, ‘마’ 및 ‘바’ 보다는 많다.
- ‘아’의 2018년 무역수지는 175,879백만달러 적자이다.

- ① [D] - [P]
- ② [E] - [N]
- ③ [F] - [Q]
- ④ [J] - [O]
- ⑤ [H] - [R]

14. 다음 <표>는 ‘갑’국의 학교별·성별 졸업자 수 및 졸업자 취업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갑’국 학교별·성별 졸업자 수 및 졸업자 취업률
(단위: 개, 명, %)

구분		학교 수	졸업자 수			졸업자 취업률		
			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계	547	550,354	271,821	278,533	67.1	69.0	65.2
	국립	82	94,442	53,667	40,775	63.1	67.4	57.6
	공립	9	5,004	3,175	1,829	69.3	71.5	65.4
	사립	456	450,908	214,979	235,929	67.9	69.4	66.5
전문대학	계	138	166,521	75,600	90,921	70.9	69.9	71.6
	국립	2	685	469	()	81.3	82.6	78.7
	공립	7	2,677	1,655	()	67.7	69.1	65.3
	사립	129	163,159	()	()	70.9	69.9	71.7
일반대학	계	191	323,881	162,530	161,351	63.3	66.0	60.6
	국립	34	72,719	41,801	()	59.4	63.4	54.2
	공립	1	1,951	()	679	70.0	72.0	66.4
	사립	156	249,211	()	()	64.3	66.8	62.1
기타대학	계	218	59,952	33,791	26,161	()	()	()
	국립	46	21,038	11,397	()	()	()	()
	공립	1	376	248	128	()	()	()
	사립	171	38,538	22,146	16,392	()	()	()

※ 성비 = 해당 집단에 속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 학교별 평균 졸업자 수(명) = $\frac{\text{졸업자 수}}{\text{학교 수}}$

- ① 학교별 평균 졸업자 수가 적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공립, 국립, 사립이다.
- ② 일반대학 학교 수에서 국립대학 학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타대학 학교 수에서 국립대학 학교 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 ③ 공립대학 졸업자의 성비는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이 더 높다.
- ④ 전문대학 중 사립대학 여자 졸업자의 수는 95,000명 이하이다.
- ⑤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전문대학, 기타대학, 일반대학이다.

15. 다음 <표 1>과 <표 2>는 농구리그 MVP 후보 A~H의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이다. <정보>를 근거로 MVP 순위를 정할 때, 4위인 선수와 그 선수의 총 점수로 옳은 것은?

<표 1> MVP 후보 주요지표

선수	경기 수(회)	평균 슛 시도(회)	평균 어시스트(개)	평균 리바운드(개)
A	63	32.0	5.8	5.5
B	67	28.8	7.5	4.2
C	51	28.5	2.8	10.6
D	61	28.1	5.9	11.0
E	66	27.7	8.6	8.0
F	65	22.2	11.7	11.5
G	72	26.4	8.3	10.8
H	52	24.8	5.2	6.5

<표 2> MVP 후보 보조지표

선수	평균 스틸(개)	평균 블락(개)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A	1.2	0.1	48.2%	42.1%	91.6%
B	0.9	0.3	45.1%	39.1%	92.8%
C	1.0	1.4	51.3%	37.7%	85.9%
D	1.2	1.2	56.9%	30.3%	68.5%
E	1.0	0.6	47.9%	35.0%	73.0%
F	1.4	0.3	43.9%	31.5%	65.6%
G	1.3	0.7	56.6%	38.8%	86.8%
H	1.6	0.4	51.2%	39.8%	76.4%

<정 보>

- 총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 총 점수는 평균 슛 시도 점수, 평균 어시스트 점수, 평균 리바운드 점수의 합에 추가 점수 및 감점을 반영한 점수이다.
- 주요지표의 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점수	평균 슛 시도	평균 어시스트	평균 리바운드
5	30회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4	28회 이상 30회 미만	8개 이상 10개 미만	8개 이상 10개 미만
3	25회 이상 28회 미만	6개 이상 8개 미만	6개 이상 8개 미만
2	22회 이상 25회 미만	4개 이상 6개 미만	4개 이상 6개 미만
1	20회 이상 22회 미만	2개 이상 4개 미만	2개 이상 4개 미만
0	20회 미만	2개 미만	2개 미만

- 평균 스틸과 평균 블락의 합이 2.0개 이상이면 3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 야투 성공률이 45.0% 미만이고, 3점 성공률이 35.0% 미만이면 2점을 감점한다.
- 자유투 성공률이 90.0% 이상이면 1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 총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기 수가 많은 순서대로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
- 경기 수 60회 미만은 MVP 순위 산정에서 제외한다.

	선수	총 점수
①	A	10점
②	B	10점
③	D	10점
④	E	11점
⑤	F	11점

16. 다음은 ‘갑’ 테니스 팀 선수들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번 대회에 출전할 복식 조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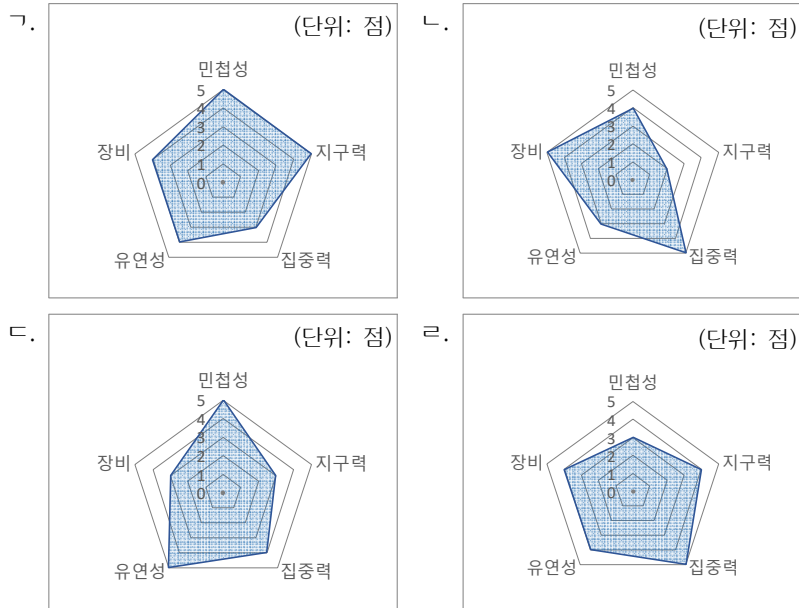
‘갑’ 테니스 팀은 선수 4명(ㄱ, ㄴ, ㄷ, 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식 대회에 경기력이 가장 높은 한 조를 출전시킬 예정이다. 테니스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민첩성, 지구력, 집중력, 유연성, 장비가 있는데, 복식 조합에 속한 두 선수의 요소별 점수에 따라 복식 조합의 경기력이 달라지게 된다. 복식 조합의 경기력은 복식 조합의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복식 조합의 요소별 점수 계산 방법

요소	점 수
민첩성	두 선수의 민첩성 점수의 평균 (단, 한 명 이상의 민첩성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평균에서 0.5점을 더함)
지구력	두 선수의 지구력 점수의 평균 (단, 한 명 이상의 지구력 점수가 2점 이하인 경우 평균에서 0.5점을 뺌)
집중력	두 선수의 집중력 점수의 평균 (단, 두 선수의 집중력 점수가 2점 이상 차이나는 경우 평균에서 0.5점을 뺌)
유연성	두 선수의 유연성 점수의 평균
장비	두 선수의 장비 점수의 평균

※ 단, 복식 조합의 요소별 점수는 최대 5점이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같은 경우 집중력 점수가 가장 높은 조합을 선발함

<보 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7. 다음 <정보>와 <표>는 어느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자료이다. <정보>와 <표>를 근거로 갑~무 중 2021년도 부동산 보유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납세의무자를 고르면?

<정 보>

-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판단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임
- 납세의무자: 주택 보유자
- 과세대상: 주택
- 과세표준 = (개인별 주택 공시지가의 합 - 기본공제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음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함
- 세율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6%	3%	1.2%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1.6%		3.6%	

-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함
-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구조를 의미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
- 부동산 보유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됨

<표> 갑~무의 주택 보유 및 부동산 보유세 납부 현황

구분		납부일	보유 주택	공시지가	취득일	조정대상 지역 여부
갑	개인	2021. 12. 16.	a	16억 4,000만원	2019. 12. 30.	O
			b	7억 6,000만원	2021. 2. 10.	X
을	개인	2021. 12. 1.	c	7억원	2016. 4. 15.	X
			d	6억 8,000만원	2018. 10. 15.	O
			e	4억 2,000만원	2019. 3. 3.	X
병	개인	2021. 12. 13.	f	11억 3,000만원	2015. 10. 2.	O
			g	8억 7,000만원	2018. 7. 15.	O
정	법인	2021. 12. 15.	h	5억 2,000만원	2020. 1. 18.	X
무	법인	2021. 12. 20.	i	7억 5,000만원	2019. 12. 30.	O
			j	4억 5,000만원	2021. 6. 25.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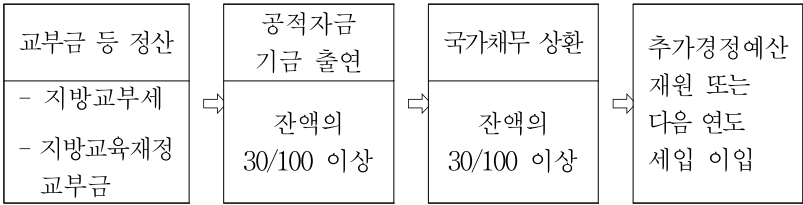
※ 갑~무 모두 각 주택을 취득일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18. 다음 글과 주어진 <표>는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이다. <표>의 사용 내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 등을 합한 금액이다. ‘갑’국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되고, 이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그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된다.

<그림> ‘갑’국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표> ‘갑’국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내역			
		교부금 등 정산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추가경정 예산 재원	다음 연도 세입 이입
2020	214,651	1,475	(A)	11,451	(B)
2021	347,874	(C)	15,418	(D)	(E)

<보 기>

- ㄱ. 202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A)을 위하여 10조 8,500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ㄴ. 202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을 위하여 5조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세입 이입에 사용된 금액(B)은 9조원보다 작다.
- ㄷ.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교부금 등 정산에 사용된 금액(C)은 31조 7,000억원보다 크다.
- ㄹ.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 금액(D)과 다음 연도 세입 이입에 사용된 금액(E)의 합은 1조 4,000억원보다 작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다음 <표>는 ‘갑’국의 광고산업 종사자 수, 매출 및 채용인원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19.~문 20.]

<표 1> 광고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및 매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인 이상
종사자 수	9,201	11,707	18,424	6,297	19,443
매출	1,263,155	1,993,430	3,828,409	1,398,115	6,706,571

<표 2> 광고산업 업종별 매출 및 채용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광고 대행업	광고 제작업	광고 전문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 대행업	옥외 광고 대행업
매출		6,528,269	1,732,676	2,871,132	728,218	2,080,184	1,249,201
사업체당 평균매출		3,024	1,168	1,724	561	2,416	1,922
채용 인원	전 체	2,118	1,075	1,931	446	1,646	322
	신입	정규직	933	427	768	199	813
		비정규직	43	70	353	15	13
		계	976	497	1,121	214	826
	경력	정규직	1,090	512	685	220	804
		비정규직	52	66	125	12	16
		계	1,142	578	810	232	820

※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사업체당 평균매출(백만원) = $\frac{\text{매출}}{\text{사업체 수}}$

<표 3> 광고대행업 세부 업무 분야별 · 권역별 매출 현황

(단위: 억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
수도권	16,080	2,479	6,249	3,760	15,735
강원권	-	-	-	20	-
충청권	119	42	9	68	16
전라권	200	85	77	79	-
경상권	231	165	173	58	286
	모바일	온라인	IPTV	DMB	옥외
수도권	3,563	8,187	415	306	4,766
강원권	-	-	-	-	-
충청권	40	76	1	-	46
전라권	27	29	-	-	53
경상권	547	667	51	2	575

19.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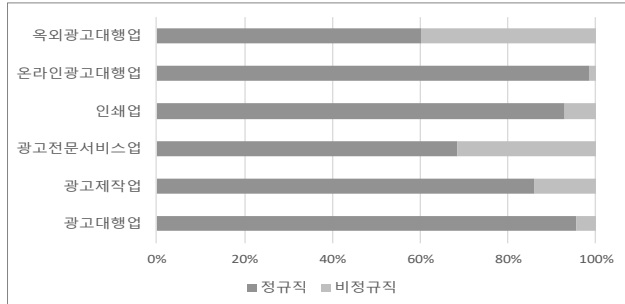
<보 기>

- ㄱ. ‘갑’국의 광고산업 사업체 수는 5,000개 이상이다.
- ㄴ. 광고산업 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일수록 전체 매출도 많다.
- ㄷ. 전체 채용인원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업종은 광고대행업, 인쇄업, 온라인광고대행업이다.
- ㄹ. 광고대행업의 경우, ‘TV’, ‘라디오’, ‘잡지’, ‘모바일’, ‘온라인’ 분야 각각에서 매출이 많은 권역을 그 규모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순서가 모두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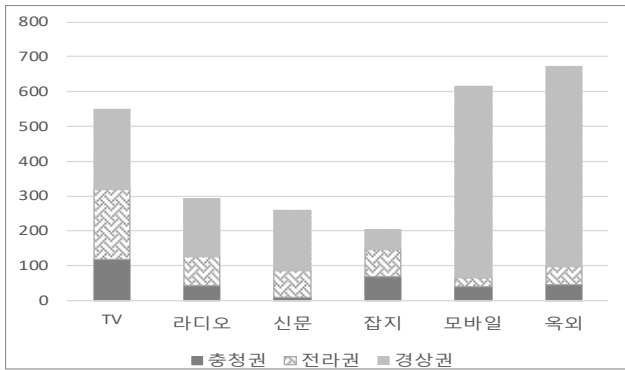
20. 다음 중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① 업종별 채용인원(신입)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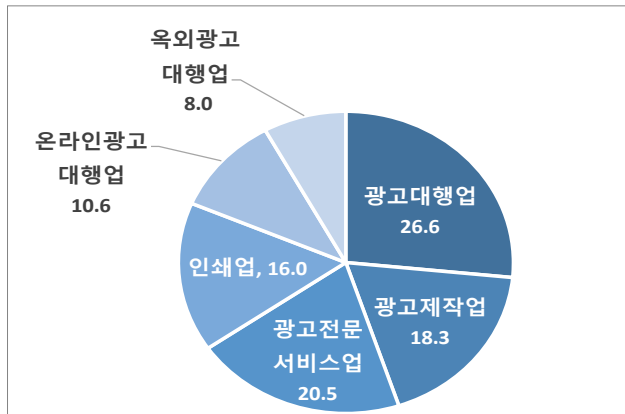
② 충청권·전라권·경상권의 광고대행업 세부 업무 분야별(TV, 라디오, 신문, 잡지, 모바일, 옥외) 매출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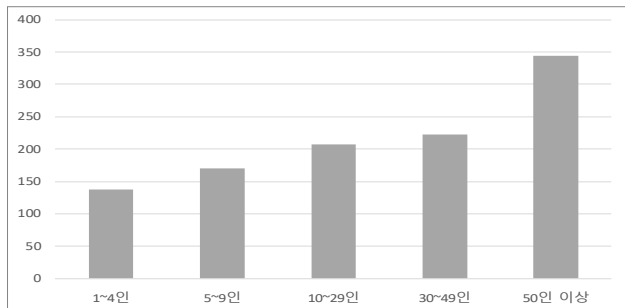
③ 광고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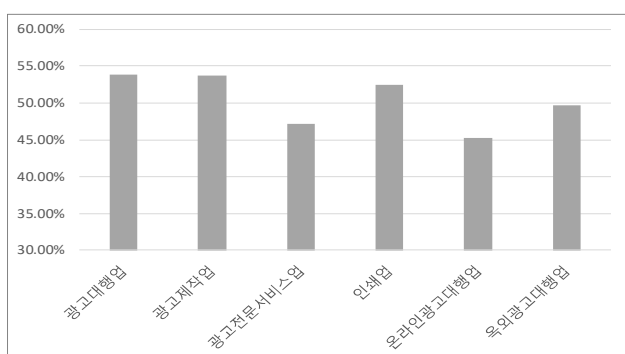


④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1인당 매출

(단위: 백만원)



⑤ 업종별 전체 채용인원 대비 경력 채용인원 비율



21. 다음 <표>는 '갑'국 공공기관의 2013~2019년 자산 현황 및 공공기관 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3~2019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조원)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공기업	600.3	579.3	569	563	555.6	561.2	550.1
종류별	시장형	296.3	283	277.3	276.2	271.9	258.4
	준시장형	304	296.3	291	285.7	279.4	291.7
준정부기관	215.5	207.3	205.1	201.7	193.3	187.1	184.3
종류별	기금관리형	125.4	116	113.1	110.9	109.6	116.3
	위탁집행형	90.1	91.3	92	90.8	87.8	77.5
기타공공기관	45.3	41.8	36	35	32.1	29.4	26.3

※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만 구성됨

<표 2> 2013~2019년 공공기관 수 현황

(단위: 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공기업	36	35	35	30	30	30	30
종류별	시장형	16	15	14	14	14	14
	준시장형	20	20	21	16	16	16
준정부기관	93	93	88	89	86	87	87
종류별	기금관리형	14	16	16	17	17	17
	위탁집행형	79	77	72	69	70	70
기타공공기관	210	210	207	202	200	185	178

※ 공공기관당 평균자산(조원) = $\frac{\text{공공기관 자산}}{\text{공공기관 수}}$

<보 기>

- ㄱ. 2013년 대비 2019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산 증가율이 준시장형 공기업 자산 증가율보다 높다.
- ㄴ. '갑'국 전체 공공기관 자산 합계는 2015년이 2014년보다 4조원 이상 크다.
- ㄷ. 시장형 공기업의 공공기관당 평균자산은 2018년이 2019년보다 크다.
- ㄹ.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공공기관당 평균자산의 증가율이 가장 큰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2. 다음 <표>는 2020년 우리나라 5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국내여행 방문자 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B’와 ‘C’에 해당하는 도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20년 국내여행 도시별 방문자 수

(단위: 천명)

		A	B	대구	C	D
방문자 수		16,412	17,317	5,346	11,981	4,399
성별	남자	8,945	8,663	2,591	6,172	2,182
	여자	7,467	8,654	2,755	5,809	2,217
연령	19세 이하	1,048	863	178	324	171
	20대	4,385	4,796	990	2,644	902
	30대	3,458	4,156	1,186	2,511	786
	40대	2,968	3,194	1,270	2,832	785
	50대	2,531	2,606	980	2,081	894
	60대	1,228	1,298	489	1,255	513
	70세 이상	794	404	253	334	348
학력	초졸이하	288	236	82	112	274
	중학교	697	682	446	276	210
	고등학교	4,583	4,680	1,884	4,005	1,378
	대학교 이상	10,844	11,719	2,934	7,588	2,537

<정 보>

- 남자 국내여행 방문자 수가 여자 국내여행 방문자 수보다 많은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이다.
- 5개 도시 중 각 도시별 국내여행 방문자 수에서 20대 방문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이다.
- 각 도시별 국내여행 방문자 수에서 ‘대학교 이상’ 학력의 방문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인천보다 높다.

- B

C
- ①

부산

서울
- ②

부산

인천
- ③

서울

부산
- ④

서울

인천
- ⑤

인천

광주

23. 다음 <표>는 6,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한 노후 대비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노후 대비 방법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대비하고 있음	국민연금	직역연금	사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저축성보험	부동산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전체		67.4	71.3	9.8	17.9	4.3	13.2	40.6	9.7	6.7	0.2
성별	남성	70.7	73.7	10.1	16.6	3.9	15.1	37.1	9.5	7.8	0.2
	여성	64.2	68.7	9.5	19.3	4.7	11.3	44.4	9.9	5.6	0.2
연령	19~29세	40.9	70.6	9.3	13.4	3.5	11.4	41.5	1.8	11.6	0.1
	30~39세	74.1	72.5	9.4	18.1	1.5	16.0	37.7	6.9	11.3	0.1
	40~49세	78.5	72.5	9.4	23.6	3.3	16.4	36.5	8.7	8.2	0.1
	50~59세	80.0	75.6	9.2	20.4	5.3	15.2	38.2	10.7	4.9	0.2
	60세 이상	63.0	65.9	11.1	12.7	6.2	7.8	47.6	14.4	2.2	0.3
	60~64세	76.3	74.3	9.7	14.6	5.5	9.3	46.9	10.0	3.0	0.3
	65세 이상	56.7	60.6	12.0	11.5	6.6	6.9	48.1	17.2	1.7	0.3
최종학력	초졸이하	43.9	66.9	3.8	12.7	6.0	5.6	49.3	13.8	0.9	0.1
	중 졸	60.7	71.0	6.0	14.2	5.0	7.8	46.9	11.8	1.7	0.2
	고 졸	65.3	74.7	6.2	16.3	5.4	12.5	42.2	8.8	5.3	0.1
	대졸이상	85.0	69.5	13.8	20.4	3.1	15.6	37.4	9.4	9.3	0.2

※ 대비하고 있는 응답자 중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 가능

※ 무응답자는 없음

<보 기>

- ㄱ. 조사 대상자 중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남성 응답자 수는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여성 응답자 수보다 많다.
- ㄴ. 조사 대상자 중 주식, 채권 등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60~64세 응답자 수는 주식, 채권 등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65세 이상 응답자 수보다 많다.
- ㄷ. 조사 대상자 중 최종학력이 고졸인 응답자 수와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답자 수가 각각 2,000명, 1,500명이라고 할 때, 조사 대상자 중 최종학력이 중졸인 응답자 수는 최종학력이 초졸 이하인 응답자 수의 20배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24. 다음 <표>는 ‘갑’ 지역이 지닌 강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기>의 그래프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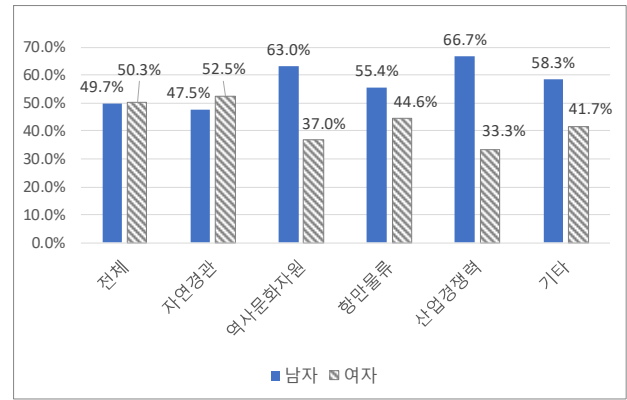
<표> ‘갑’ 지역의 강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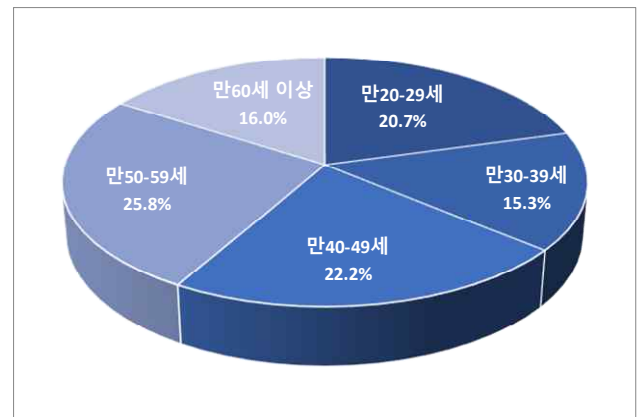
		사례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항만물류	산업경쟁력	기타
전 체		743	594	27	92	18	12
성별	남자	369	282	17	51	12	7
	여자	374	312	10	41	6	5
연령	만20-29세	164	123	7	25	5	4
	만30-39세	145	114	4	19	4	4
	만40-49세	169	132	9	21	5	2
	만50-59세	183	153	4	21	4	1
	만60세 이상	82	72	3	6	0	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12	100	2	8	1	1
	대학교 졸업	525	415	22	67	13	8
	대학원 졸업 이상	106	79	3	17	4	3
거주형태	혼자 생활	103	86	3	10	2	2
	가족과 함께 생활	630	501	24	81	14	10
	친구·동료·지인 등과 생활	10	7	0	1	2	0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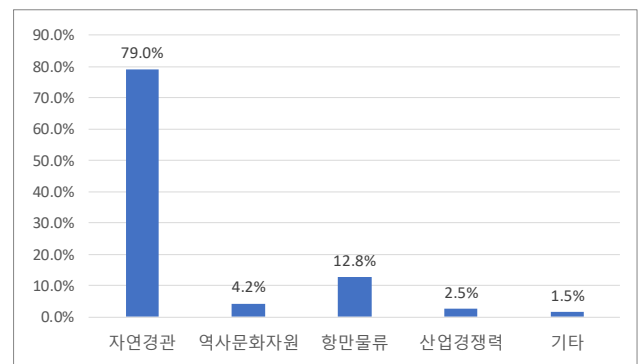
ㄱ. 성별에 따른 강점유형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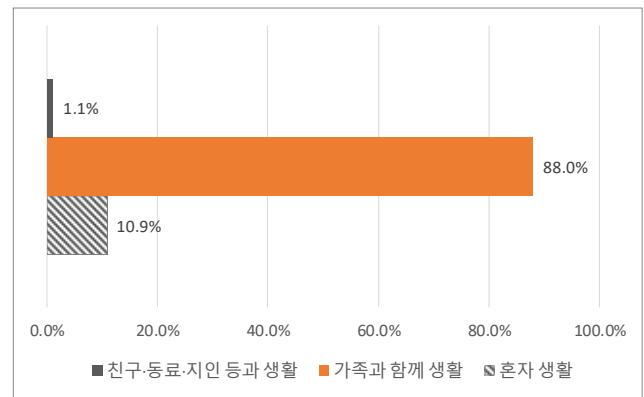
ㄴ. 자연경관을 강점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ㄷ.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응답자의 강점유형별 응답 분포



ㄹ. 항만물류를 강점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거주형태별 분포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5. 다음 <표>는 2020년 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1> 2020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개, m², %)

단지 유형	단지 수	지정 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	분양 대상 면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분양률
국가	47	806,620	285,324	250,185	231,590	18,595	92.57
일반	676	531,882	322,608	255,299	236,468	18,831	92.62
도시첨단	30	8,297	4,267	1,979	1,356	623	68.52
농공	472	76,716	57,967	56,066	53,543	2,523	95.50

※ 분양률(%) = $\frac{\text{분양면적}}{\text{분양대상면적}} \times 100$

※ 미분양률(%) = $\frac{\text{미분양면적}}{\text{분양대상면적}} \times 100$

<표 2> 2020년 산업단지 유형별 입주업체 현황
(단위: 개, 명, 십억원, 백만달러)

단지 유형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 인원	생산실적(십억원)		수출실적(백만달러)	
				분기별 평균 (2019년)	분기별 평균 (2020년)	분기별 평균 (2019년)	분기별 평균 (2020년)
국가	55,006	50,396	1,072,943	394,442	361,208	130,249	114,722
일반	42,009	38,619	957,249	299,501	291,734	122,802	118,600
도시첨단	1,244	811	15,796	1,249	1,708	360	366
농공	7,594	6,831	152,971	42,129	42,141	9,080	8,289

※ 업체당 생산(수출)실적 = $\frac{1\text{년 생산(수출)실적}}{\text{입주업체}}$

※ 업체당 실생산(실수출)실적 = $\frac{1\text{년 생산(수출)실적}}{\text{가동업체}}$

<보 기>

- ㄱ. 2020년 단지당 지정면적이 가장 작은 단지유형에 입주한 업체의 전체 고용인원은 단지당 지정면적이 가장 큰 단지유형에 입주한 업체의 전체 고용인원의 10% 이상이다.
- ㄴ. 2020년 분양률이 가장 높은 단지유형의 2020년 업체당 생산실적은 200억원 이상이다.
- ㄷ. 2020년 미분양률이 가장 높은 단지유형의 2019년 업체당 수출실적은 100만달러 이상이다.
- ㄹ. 2020년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실생산실적은 일반산업단지의 업체당 실생산실적보다 높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26. 다음 <표>는 기관별 가계대출 분기말 잔액과 당기 증가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1>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 및 2021년 3분기말 잔액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말 잔액
가계대출	23.9	39.7	46.3	34.7	41.0	37.0	1,744.7
주택담보대출	14.8	17.4	20.2	20.4	17.3	20.8	969.0
기타대출	9.1	22.3	26.1	14.3	23.8	16.2	775.7

<표 2> 기관별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 및 2021년 3분기말 잔액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말 잔액
예금취급기관		14.5	29.0	35.5	24.2	21.5	29.2	1,248.7
종류별	주택담보대출	9.0	12.8	18.2	16.6	6.4	19.2	722.0
	기타대출	5.5	16.2	17.3	7.6	15.1	10.0	526.7
세부 기관별	예금은행	14.3	25.9	28.8	18.7	12.4	21.0	902.0
	상호저축	0.9	1.9	2.0	1.9	2.6	1.4	37.4
	신용협동조합	-0.4	-0.1	0.5	0.0	0.3	0.6	35.9
	상호금융	1.1	2.1	3.7	3.8	5.7	5.2	209.3
	새마을금고	-1.3	-0.8	0.4	-0.1	0.5	0.9	62.8
	신탁·우체국예금	-0.1	-0.0	0.1	-0.1	0.0	0.1	1.3
	기타금융기관	9.3	10.6	10.8	10.5	19.6	7.7	496.1
종류별	주택담보대출	5.8	4.5	2.1	3.7	10.9	1.5	247.1
	기타대출	3.5	6.1	8.7	6.7	8.7	6.2	249.0
세부 기관별	보험회사	-1.2	1.5	1.8	1.0	1.5	1.3	124.4
	연금기금	-0.2	0.3	0.2	0.3	0.3	0.5	16.7
	여신전문회사	-1.2	1.8	2.7	2.1	2.5	0.4	75.6
	공적금융기관	2.2	1.2	-1.1	-0.7	3.3	0.5	47.8
	기타금융중개회사	10.3	5.4	7.8	7.4	12.6	4.7	219.8
	기타	-0.6	0.3	-0.5	0.4	-0.5	0.3	11.8

※ 단,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이란 해당 분기 기말 가계대출 잔액에서 기초 가계대출 잔액을 뺀 값임

※ n분기 기말 가계대출 잔액 = (n + 1)분기 기초 가계대출 잔액

※ 예: 2021년 2분기말 기타금융기관 기타대출 잔액은 242.8조원 (249.0조원 - 6.2조원)

- ①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이 기타대출 잔액 증가액보다 컸던 분기에는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이 10조원 이상이었다.
- ② 2020년 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 대비 2021년 3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상호저축이 신용협동조합보다 크다.
- ③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이 매 분기 증가하였다.
- ④ 2020년 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큰 세부기관은 예금은행이고, 기타금융중개회사와 상호금융이 그 뒤를 잇는다.
- 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에서 기타금융기관 비중이 가장 컸던 분기와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이 가장 작았던 분기는 동일하다.

27. 다음 <표>는 ‘가’~‘아’ 8개 지역의 소비상품권 발행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지역별 소비상품권 발행액, 국가부담분, 지역부담분, 사용액 및 구매자 수
(단위: 천달러, 명)

지역	발행액	국가 부담분	지역 부담분	사용액	구매자 수
가	37,794	4,914	6,803	27,589	60,255
나	26,463	3,176	2,911	20,641	56,327
다	38,099	4,953	7,620	25,907	65,142
라	19,337	2,514	1,161	12,569	28,122
마	38,823	5,047	9,318	31,446	63,180
바	36,930	5,171	7,386	27,697	72,004
사	30,673	3,375	7,055	25,765	54,015
아	46,769	6,080	8,419	26,658	89,109

※ 발행액 = 국가부담분 + 지역부담분 + 사용자부담분 = 사용액 + 미사용액

<표 2> 지역별 전체 소비상품권 사용액 대비 해당 산업 소비상품권 사용액 비중
(단위: %)

지역\산업	종합소매	외식	헬스뷰티	의료	여가취미	기타	합계
가	21.1	25.5	15.4	10.0	14.0	14.0	100.0
나	18.2	26.7	10.2	17.0	12.9	15.0	100.0
다	23.2	18.4	19.5	11.8	11.2	15.9	100.0
라	20.8	18.8	24.0	7.1	13.7	15.6	100.0
마	22.6	22.2	16.1	6.3	17.5	15.3	100.0
바	17.9	17.6	13.6	14.5	19.2	17.2	100.0
사	29.2	26.2	16.8	4.0	16.0	7.8	100.0
아	16.5	22.1	14.5	15.8	14.8	16.3	100.0

- ① 구매자 1인당 발행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미사용액이 가장 적다.
- ② 발행액에서 사용자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각각 70% 이상이다.
- ③ ‘라’ 지역의 여가취미산업 소비상품권 사용액은 ‘마’ 지역의 의료산업 소비상품권 사용액보다 많다.
- ④ 전체 소비상품권 사용액에서 외식, 헬스뷰티, 의료 소비상품권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모든 지역에서 각 50% 이상이다.
- ⑤ 소비상품권 발행액 대비 미사용액의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발행액에서 지역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다.

28. 다음 <표>는 고등학교 A~C의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C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6~2019년 고등학교 A~C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 인원	참여 인원	대면 참여 인원	대상 인원	참여 인원	대면 참여 인원	대상 인원	참여 인원	대면 참여 인원	대상 인원	참여 인원	대면 참여 인원
A	182	178	177	176	167	154	163	125	122	163	135	116
B	352	315	296	354	342	335	363	308	262	350	296	246
C	1,709	1,647	1,564	1,610	1,535	1,502	1,727	1,610	1,494	1,794	1,518	891

- ※ 대상인원 = 참여인원 + 불참인원
- ※ 참여인원 = 대면참여인원 + 비대면참여인원
- ※ 참여율(%) = $\frac{\text{참여인원}}{\text{대상인원}} \times 100$
- ※ 대면참여율(%) = $\frac{\text{대면참여인원}}{\text{참여인원}} \times 100$

<정 보>

○ 2017~2019년 동안 불참인원 대비 비대면참여인원 비율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한 고등학교는 (가)이다.

○ 2019년 전년대비 참여율은 상승하고 대면참여율은 하락한 고등학교는 (나)이다.

○ 2017년 대상인원 대비 대면참여인원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고등학교는 (다)이다.

- A

B

C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나)
- ③

(나)

(가)

(다)
- ④

(나)

(다)

(가)
- ⑤

(다)

(가)

(나)

29. 다음 <표>는 개체별로 A, B 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개체별 · 측정항목별 데이터 값 및 순위

측정 항목	개체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평균
A	데이터 값	294	287	()	270	233	()	()	321
	순위	4	()	()	()	7	()	()	-
B	데이터 값	64	54	75	49	()	95	39	64
	순위	()	()	()	()	()	()	()	-

※ 각 측정항목별로 데이터 값이 높을수록 순위가 높으며, 각 측정항목에서 개체 간 순위가 같은 경우는 없음

<정 보>

‘순위불일치계수’는 각 개체별 (측정항목 A와 측정항목 B의 각 순위 차이)² 값을 모두 더한 뒤 개체 수로 나눈 값으로, ‘가’부터 ‘사’까지 7개 개체의 순위불일치계수는 6이다.

<보 기>

- ㄱ. ‘마’의 측정항목 B의 순위는 2위이다.
- ㄴ. ‘다’는 측정항목 A보다 측정항목 B에서 순위가 높다.
- ㄷ. ‘다’와 ‘사’의 측정항목 A의 데이터 값을 서로 바꾸면 순위불일치계수는 바꾸기 전보다 높아진다.
- ㄹ. 측정항목 A와 측정항목 B의 순위가 같은 개체는 4개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0. 다음 <표>와 <정보>는 미식가 ‘갑’이 음식점 추천 리스트 ‘갑-가이드’ 작성을 위해 정리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음식점 A~E 중 평가점수가 두번째로 높은 음식점은?

<표> 미식가 ‘갑’의 ‘갑-가이드’ 작성 자료

음식점	맛평가 지수	인테리어 평가지수	서비스 평가지수	매체 추천 현황
A	3.5	4	5	지역 우수음식점 인증(2021년), 타이어가이드(2020년), 푸드인한국(2021년)
B	3	4.5	3	지역 우수음식점 인증(2021년), 옐로우리본(2021년), 푸드인충청(2021년), 타이어가이드(2021년)
C	3	3	2	지역 우수음식점 인증(2021년), 타이어가이드(2019년, 2020년), 옐로우리본(2020년)
D	5	1	4	지역 우수음식점 인증(2021년), 옐로우리본(2021년), 甲-가이드(2019년, 2020년)
E	3	5	1	옐로우리본(2021년), 타이어가이드(2021년)

<정 보>

- 미식가 ‘갑’은 음식점 추천 리스트인 ‘갑-가이드’를 작성하는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text{평가점수} = \frac{V_i V_t^2 + V_s + R_m^2}{3}$$

V_i = 인테리어평가지수, V_t = 맛평가지수, V_s = 서비스평가지수
 R_m = 주요 매체 2021년 추천 횟수

※ ‘갑’이 인정하는 주요 매체는 매년 실시하는 ‘지역 우수음식점 인증’, ‘타이어가이드’, ‘옐로우리본’, ‘푸드인한국’으로 한정함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1. 다음 <표>는 ‘갑’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 자격증 지원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개별 지원반의 정원, 현원 및 합격생 수

지원반	정원 및 현원			합격생		
	정원(명)	현원(명)	충원율(%)	2급 합격생(명)	1급 합격생(명)	합계(명)
1	25	14	56	13	7	20
2	15	15	100	15	9	24
3	10	8	80	4	6	10
4	20	15	75	12	6	18
5	30	20	66.7	3	5	8

※ 충원율(%) = $\frac{\text{현원}}{\text{정원}} \times 100$

<정 보>

○ 항목별 예산 배분액은 다음과 같다.

항 목	항목별 예산 배분액(만원)
1) 정원 기준	5,000
2) 성과 기준	5,000
2-1) 합격자 성과 기준	4,000
2-2) 성과 효율성 기준	1,000

○ 정원 기준 항목에 배분된 예산은 각 지원반별 정원 기준 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각 지원반에 배분한다.

$$i \text{ (} = 1, 2, 3, 4, 5 \text{)} \text{ 지원반의 정원 기준 배분 비율(\%)} \\ = \frac{i \text{ 지원반 정원}}{\sum_{i=1}^5 (i \text{ 지원반 정원})} \times 100$$

○ 성과 기준 항목 중 합격자 성과 기준 항목에 배분된 예산은 각 지원반별 합격자 성과 기준 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각 지원반에 배분한다.

$$i \text{ (} = 1, 2, 3, 4, 5 \text{)} \text{ 지원반의 합격자 성과 기준 배분 비율(\%)} \\ = \frac{i \text{ 지원반 합격생 수}}{\sum_{i=1}^5 (i \text{ 지원반 합격생 수})} \times 100$$

○ 성과 기준 항목 중 성과 효율성 기준 항목에 배분된 예산은 각 지원반별 성과 효율성 기준 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각 지원반에 배분한다.

$$i \text{ (} = 1, 2, 3, 4, 5 \text{)} \text{ 지원반의 성과 효율성 기준 배분 비율(\%)} \\ = \frac{\frac{i \text{ 지원반 1급 합격생 수}}{i \text{ 지원반 현원 수}}}{\sum_{i=1}^5 (\frac{i \text{ 지원반 1급 합격생 수}}{i \text{ 지원반 현원 수}})} \times 100$$

○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서 만점의 80% 미만 점수를 득점한 사람을 불합격생, 80% 이상 90% 미만 점수를 득점한 사람을 2급 합격생, 90% 이상 점수를 득점한 사람을 1급 합격생으로 한다.

- ① 성과 효율성 기준 배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원반은 3반이다.
- ② 2반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된다.
- ③ 2반에 가장 많은 성과 기준 예산이 배분된다.
- ④ 4반이 받게 되는 총 예산은 2,060만원이다.
- ⑤ 전체 지원반의 충원율 순위와 합격자 성과 기준 배분 비율의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32. 다음 <표>는 ‘갑’국의 국가도서관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가)~(라) 도서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국 국가도서관 현황

구 분	관수(개)	장서수(천권)	방문자수(명)	대출권수(천권)
(가)도서관	241	14,713	1,976,521	1,834
(나)도서관	1,134	110,329	13,038,381	127,125
(다)도서관	4,474	39,043	37,030,519	20,190
장애인도서관	36	158	45,466	333
교도소도서관	52	319	21,858	122
(라)도서관	611	2,278	37,455	155

※ ‘갑’국의 국가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교도소도서관으로 구성됨

<정 보>

-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1관당 장서 수가 10,000권 이상이다.
- 1관당 대출권수는 전문도서관이 제일 적다.
- 국립도서관은 방문자 1인당 대출권수가 1권 이하이다.

	(가)	(나)	(다)	(라)
①	국립	공공	작은	전문
②	국립	작은	공공	전문
③	작은	국립	공공	전문
④	공공	국립	작은	전문
⑤	국립	공공	전문	작은

33. 다음 <표>는 2021년 월별 원유 수입추이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2021년 월별 원유 수입추이
(단위: 백만배럴, 백만달러, 달러/배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유 수입량	76 (-10)	74 (-13)	71 (-15)	82 (+5)	80 (+5)	80 (+10)	78 (-10)	81 (+5)	78 (-1)	84 (+3)	80 (+20)	85 (+1)
원유 수입 금액	4,011 (-30)	4,278 (-25)	4,532 (-5)	5,412 (+80)	5,382 (+150)	5,575 (+150)	5,784 (+70)	6,087 (+70)	5,764 (+60)	6,486 (+80)	6,619 (+125)	7,089 (+80)
수입 단가	52.8	57.8	63.8	66.0	67.3	69.7	74.2	75.1	73.9	77.2	82.7	83.4

※ () 안의 수는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단위: %)을 의미

※ 수입단가(달러/배럴) = $\frac{\text{원유 수입금액(달러)}}{\text{원유 수입량(배럴)}}$

- ① 2021년 원유수입금액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10월 이다.
- ② 2021년 상반기 원유수입량의 평균보다 하반기 원유수입량의 평 균이 4백만배럴 이상 크다.
- ③ 2020년 7월의 수입단가는 배럴당 40달러보다 작다.
- ④ 평균 수입단가를 주어진 기간동안 월별 수입단가의 평균이라고 할 때, 2021년 평균 수입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높은 달의 수는 8개이다.
- ⑤ 2021년 전년 동월대비 수입단가가 하락한 달의 수는 3개이다.

34. 다음은 2021년에 출시된 보드게임 A~H에 대한 평점투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평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2021년 출시 보드게임 평점투표 자료

게임	평 점										투표 자수	평균 평점	보정 평점
	10	9	8	7	6	5	4	3	2	1			
A	25	78	79	82	42	28	21	15	6	24	400	6.79	6.19
B	47	85	167	142	186	62	51	19	11	30	800	6.63	()
C	224	197	123	109	98	52	34	20	18	25	900	7.63	()
D	208	245	221	106	64	51	28	15	6	56	1,000	7.66	()
E	187	281	164	152	98	43	23	18	8	26	1,000	7.77	()
F	262	184	168	150	58	36	21	9	5	7	900	8.14	()
G	208	352	297	188	105	64	35	22	19	10	1,300	7.80	()
H	108	67	65	48	21	17	6	4	2	12	350	8.01	()

<정 보>

평점은 10점부터 1점까지의 범위에서 자연수 단위로 부여되며, 게임 순위는 평균평점이 높은 순서이다. 단, 투표자 수가 1,500명 미만인 경우 평균평점 대신 보정평점을 순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보정평점’이란 투표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게임이 평균평점이 높다는 이유로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로, 평점 5점을 부여한 가상의 투표자 200명이 추가로 있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평점이다.

예를 들어, 평점 10점을 부여한 투표자 300명만이 존재하는 게임의 평균평점은 10점이지만, 이 게임의 보정평점은 $(10 \times 300 + 5 \times 200) \div (300 + 200) = 8$ 점이다.

※ 각 투표자는 각 게임에 하나의 평점만을 부여함

<보 기>

- ㄱ. 게임 A~H 중 게임 순위가 세번째로 높은 것은 G이다.
- ㄴ. 보정평점 적용기준을 투표자 수 1,500명 미만에서 1,000명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E의 순위는 F의 순위보다 높아진다.
- ㄷ. 게임 C에 대해 추가적으로 100명의 투표자가 평점 1점을 부여한다면, 게임 C의 순위는 게임 H보다 낮아진다.
- ㄹ. 게임 A~H 중 실제 투표자 수 대비 평점 10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게임이 평균평점도 가장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5. 다음 <표 1>과 <표 2>를 근거로 ‘갑’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A~D를 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갑’국의 2022년도 월 건강보험료 산정표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가입자부담 보험료율(4%)
- ※ 보수월액 = 연간 보수 총액 ÷ 근무월수
-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보수 외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8%)
- ※ 보수 외 소득 평가율: 이자소득은 100%, 연금소득은 30%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200원
- 보험료부과점수 = 소득점수 + 자동차점수
- 소득점수 산정방식

연간소득	소득점수(점)
2,500만원 미만	7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9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100
4,500만원 이상	1,200

- 자동차점수 산정방식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점수(점)
1,500cc 미만	40
1,500cc 이상 2,000cc 미만	50
2,000cc 이상 2,500cc 미만	60
2,500cc 이상 3,000cc 미만	70
3,000cc 이상	80

<표 2> ‘갑’국 국민별 소득 현황

가입자	가입상태	연간소득		근무 월수	자동차 배기량
		보수 총액	보수 외 소득		
A	직장가입	2,400만원	연금소득 4,400만원	12개월	3,000cc
B	지역가입	3,200만원	연금소득 1,000만원	12개월	2,500cc
C	직장가입	4,100만원	이자소득 2,000만원	10개월	2,500cc
D	직장가입	3,500만원	이자소득 3,200만원	10개월	2,000cc

※ 지역가입자의 연간소득은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임

- ① A - D - B - C
- ② B - C - D - A
- ③ B - D - C - A
- ④ D - B - C - A
- ⑤ D - C - B - A

36. A~E는 주말에 모여 VR게임 ‘국회레이싱’을 하였다. <조건>과 <표>를 근거로 할 때, 국회레이싱 게임의 준우승자는?(단, 가속에 걸리는 시간 등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조 건>
- 국회레이싱 게임은 시간점수와 연료점수를 단순합산한 최종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우승자, 두번째로 낮은 사람이 준우승자가 된다.
 - 시간점수는 (완주까지 소요된 시간(s)) × 9.21 로 계산하며, 연료점수는 (완주까지 소비한 연료(L)) × 0.921 로 계산한다.
 - 국회레이싱 게임은 각 참가자들이 차량을 골라 1구간부터 3구간까지 총 3개의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간 단위로 VR기술이 접목된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상현상의 효과는 참가자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예컨대 1구간에서 D에게 발생하는 이상현상의 효과는 다른 참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상현상 중 ‘차원 관문’은 특정 구간 전체에 걸쳐 설치되며, 구간의 시작점에 진입한 특정 참가자를 연료 소모 없이 10초 후 구간의 끝점으로 순간이동시킨다.
 - 이상현상 중 ‘가속장’(‘감속장’)은 특정 구간 전체에 걸쳐 설치되며,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특정 참가자의 속도를 일정 비율만큼 증가(감소)시킨다. 연비는 변화하지 않는다.
 - 이상현상 중 ‘시간 왜곡’은 특정 구간 전체에 걸쳐 설치되며, 특정 참가자가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데에 걸린 시간을 일정 비율만큼 감소시킨다. 연비는 변화하지 않는다.
 - 이상현상 중 ‘엔진 효율’(‘엔진 비효율’)은 특정 구간 전체에 걸쳐 설치되며,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특정 참가자의 차량 연비를 일정 비율만큼 증가(감소)시킨다. 차량의 속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표> 참가자별 게임 상황

참가자	발생된 이상현상			차량의 연비 (km/L)	차량의 기본 속도 (km/s)
	제1구간 (200km)	제2구간 (200km)	제3구간 (400km)		
A	-	차원 관문	엔진 20% 비효율	5	25
B	-	시간 50% 왜곡	엔진 25% 효율	4	25
C	-	50% 가속장	20% 감속장	4	20
D	50% 감속장	시간 50% 왜곡	차원 관문	2	20
E	엔진 60% 효율	차원 관문	시간 20% 왜곡	2.5	40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7. 다음 <표>는 ‘갑’국(화폐단위: 원)의 ‘을’국(화폐단위: 달러)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과세에 대한 표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을’국 수입물품에 대한 ‘갑’국 세율표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교육세율(%)	주세율(%)	과세운임
가방	과세가격 20만원 이하	8	10	0	0	kg당 10,000원
	과세가격 20만원 초과분	8	20	30	0	
위스키	과세가격 20만원 이하	10	10	30	20	ml당 30원
	과세가격 20만원 초과분	20	10	50	30	
와인		15	10	10	30	ml당 50원

- <정 보>
- 과세가격 = 상품가격 ×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
 - 교육세 = 과세가격 × 교육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주세율
 - 수입가격 = 과세가격 × (1 + 관세율) × (1 + 부가가치세율) × (1 + 교육세율) × (1 + 주세율)
 - 2022년 고시환율 = 1,000원/달러
 - ※ 계산 예시: 과세가격 25만원인 위스키의 경우
관세 = 20만원 × 10% + (25만원 - 20만원) × 20% = 3만원

- <보 기>
- ㄱ.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80달러인 와인(1,000ml) 1병을 수입하는 경우 교육세는 8,000원, 주세는 24,000원이다.
 - ㄴ.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180달러인 가방(5kg) 1개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은 387,504원이다.
 - ㄷ. 세율표는 불변인 가운데 2022년 고시환율이 800원/달러로 하락한다면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0달러인 위스키(1,000ml) 1병에 대한 관세는 고시환율 하락 전에 비해 1,000원 감소한다.
 - ㄹ. 2022년에 ‘을’국으로부터 300달러인 위스키(1,000ml) 1병을 수입할 때의 수입가격보다 300달러인 와인(1,000ml) 1병의 수입가격이 더 낮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8. 다음 <표>는 정부 총지출의 2021~2025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1~2025년 정부 총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부 총지출	560.7	612.1	644.3	673.5	701.1
보건·복지·고용	199.7	216.7	232.2	246.1	259.3
교육	71.2	83.2	84.8	87.4	90.0
문화·체육·관광	8.5	8.8	9.1	9.4	9.8
환경	10.6	11.9	12.9	13.7	14.5
R&D	27.4	29.8	32.3	34.0	35.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0.4	32.6	35.0	36.4
SOC	26.5	27.5	28.7	29.5	30.2
농림·수산·식품	22.7	23.4	24.0	24.4	24.9
국방	52.8	55.2	57.7	60.3	63.1
외교·통일	5.7	6.0	6.2	6.4	6.6
공공질서·안전	22.3	22.4	23.4	24.3	25.1
일반·지방행정	84.7	96.8	100.4	103.0	105.8

※ 정부 총지출은 주어진 12대 분야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2022~2025년 동안 정부 총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 ㄴ. 2023년에 정부 총지출에서 ‘SOC’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한다.
- ㄷ. 2021~2025년 동안 각 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의 순위는 변화하지 않는다.
- ㄹ. 2021년 대비 2025년 재원배분 규모의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환경’ 분야이고, 가장 작은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분야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다음 <표>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39.~문 40.]

<표 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TOE)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소계	재생에너지 총량	신에너지 총량
전국	16,245,938	15,539,093	706,845
서울	350,326	290,407	59,919
부산	243,079	190,212	52,867
대구	174,597	167,380	7,216
인천	476,110	356,162	119,948
광주	82,262	81,665	597
대전	122,050	121,300	750
울산	823,985	821,432	2,554
세종	69,935	69,923	11
경기	1,681,392	1,512,325	169,067
강원	1,287,702	1,287,500	202
충북	719,065	718,968	96
충남	2,167,847	1,917,022	250,825
전북	1,665,136	1,664,074	1,062
전남	2,819,544	2,781,118	38,426
경북	2,248,198	2,245,387	2,811
경남	655,492	654,997	494
제주	659,220	659,220	-

※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2> 재생에너지의 지역별·종류별 생산량
(단위: TOE)

지역	재생에너지 종류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폐기물
전국	26,912	278,935	570,816	594,539	101,030	224,722	21,236	416,247	7,049,477
서울	705	34,320	44	373	-	15,002	-	96,475	143,488
부산	824	34,238	74	23	-	2,896	23	60,785	91,348
대구	935	26,509	6	799	-	6,875	-	78,213	54,045
인천	665	29,368	9,340	8,515	-	7,788	130	195,001	105,356
광주	632	48,389	0	1,513	-	3,593	-	25,767	1,771
대전	708	13,876	86	56	-	4,909	-	29,072	72,592
울산	357	16,048	487	282	-	4,023	-	350,446	449,788
세종	122	13,585	-	-	-	14,024	-	21,935	20,259
경기	2,696	190,808	1,030	120,716	101,030	48,650	8	416,837	630,549
강원	3,037	210,436	146,027	150,869	-	18,248	643	326,825	431,415
충북	1,215	156,278	3	133,851	-	11,158	-	66,575	349,888
충남	2,418	350,196	569	16,364	-	18,995	1,528	550,667	976,285
전북	1,289	477,060	10,805	49,373	-	20,266	756	973,153	131,373
전남	2,935	561,252	104,170	20,114	-	15,950	11,954	200,844	1,863,901
경북	4,023	342,474	164,884	50,635	-	16,192	572	115,780	1,550,827
경남	3,982	211,296	16,126	40,442	-	14,383	3,821	209,381	155,565
제주	370	71,802	117,163	614	0	1,771	1,800	444,671	21,028

※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9.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다.
- ㄴ. 전국 태양광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남 지역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남 지역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 ㄷ. 충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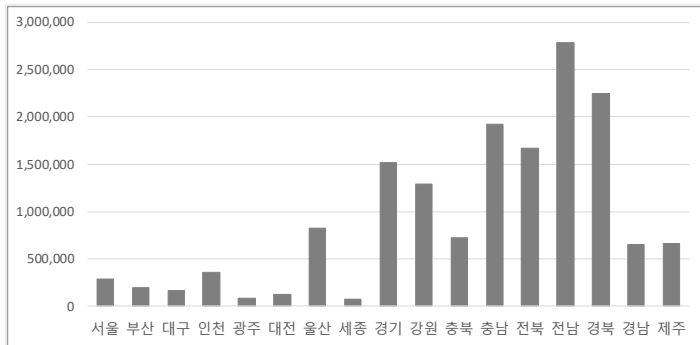
- ① ㄱ ② ㄴ
- ③ ㄱ, ㄷ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40. 다음 <보기> 중 <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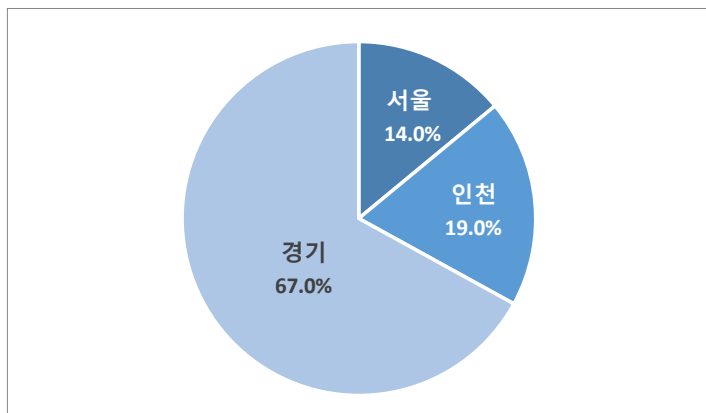
<보 기>

ㄱ.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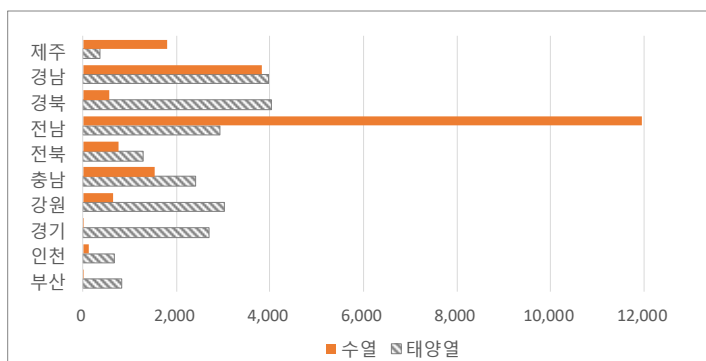


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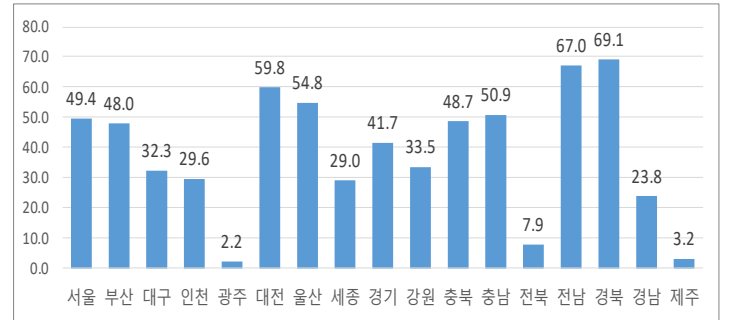
ㄷ. 지역별 태양열 및 수열에너지 생산량

(단위: TOE)



※ 단, 태양열에너지와 수열에너지를 모두 생산하는 지역만 나타냄

ㄷ.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기물에너지 생산량 비중 (단위: %)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ㄷ
- ⑤ ㄷ, ㄷ